

변모하는 SG3의 역할

- 국제 요금계산 중심에서 과도적인 정책조정으로 -

역자 : 정지은

출처 : ITU저널 2001. 9월호(日本)

기술표준 작성이 주요 임무인 ITU-T 조직 가운데, 국제전용선의 이용제도나 국제요금계산 등 제도적인 과제를 다루어 온 SG3가 큰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2개의 큰 흐름을 들 수 있다. 첫째, 국제 전기통신시장의 자유화 경쟁의 글로벌한 발전과 둘째, 정보통신 인프라 스트럭처에서 일고 있는 IP화의 흐름이다.

1. 국제 전화요금 계산의 동향

Globalization의 진전은 국제통신의 비약적인 양적 확대를 가져왔다. 그 결과 자유화와 글로벌화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미국에서 국제 전화서비스의 국제간 요금결제상, 즉 국제 요금계산에 있어 대폭적인 지불초과를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국제전화 traffic의 흐름은 선진국에서의 발신량이 개발도상국에서의 발신량보다 많아 국제 요금계산 결제시의 지불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지불토록 되어있다. 특히, 자유화와 경쟁도입에 있어 선두를 달리던 미국에서는 타국보다 먼저 국제전화 회사간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어 당초 국내에서의 경쟁수단으로 등장해온 calling card(AT&T card나 MCI card)가 규제완화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의 이용이 가능케 되었다.

이들 카드를 소유한 미국인이 타국에서 calling card를 사용하여 국제전화를 걸면 그 요금지불은 미국내의 은행으로부터 인출되어 국제 결제상 미국발신의 국제 전화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등장한 call back 업무가 다루는 국제 통화도 미국발신이 되어 타국발 국제전화가 미국발로서 결제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이 계속되어 80년대 후반에는 미국의 전화회사가 국제계산상 대외 지불액이 급증하였다. 미국의 전기통신 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 문제를 당초는 무역의 수지의 적자로서, 이후에는 서비스 무역의 적자로 하여 그 대책에 적극 개입하게 되었다. 1990년 7월 FCC 문서(FCC report No.DC-1683)에는 미국의 지불초과액이 1970년 4,000만 달러에서 1988년에는 2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FCC는 80년대에는 국제 요금계산이 비용을 상회하는, 부당하게 높은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비용에 의거한 수준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표명하고 통신사업자간의 인하고섭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이유로부터 국제 계산상의 대외지불은 증가하게 되었다. 90년대에 들어서 FCC는 일방적으로 국가별로 낮추어야 할 계산요금 수준(bench mark)을 제시하고, 제시한 수준까지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무역상 제재조치를 발동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이 제시한 국제 요금계산의 수준은 cost data가 명시되어 결제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미국이 제시한 금액까지 인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하는 것이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현실적으로 일본을 시작으로 각국과의 사이에서 서비스 무역상 대립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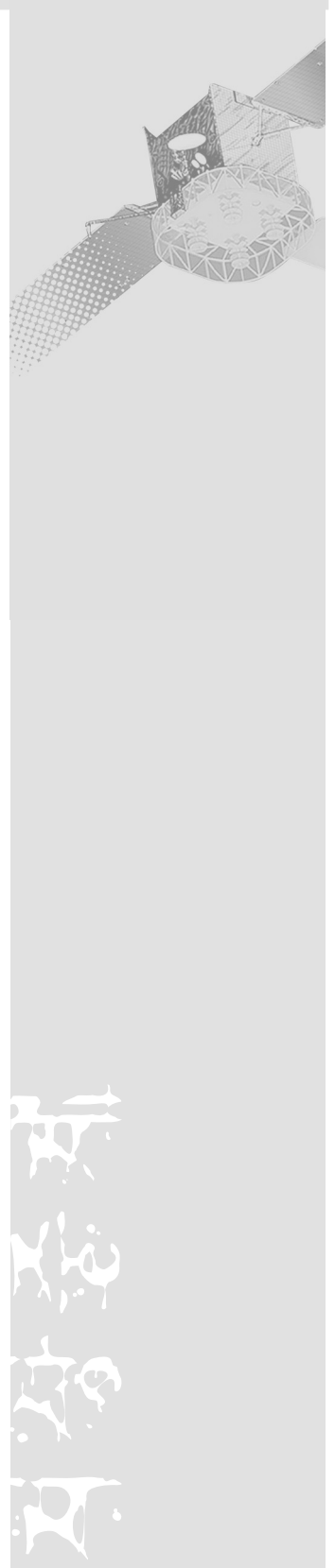
한편, 역사적으로는 국제 요금계산에 의한 국제 결제에서 귀중한 외화수입을 얻어온 개발도상국은 그 수입을 국내의 전기통신 인프라 정비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여 왔다. 80년대의 어느 시기에는 ITU 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이 결속하여 선진국으로부터의 자금원조 수단으로서 이 국제 결제의 이용요구를 들이대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미국과 기타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과의 대립이 심해져 ITU의 SG3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1992년에 권고 D.140에 합의하여 5년 이내에 요금계산을 cost base에 이르게 하고자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그러나 현실은 전화사업의 독점을 유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저항이 강하여 요금계산의 인하고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2. 휴대전화 접속요금

90년대 후반이 되어 휴대전화의 급속한 보급이 세계적인 공통의 현상이 되었다. ITU는 21세기초 수 년이내에 전 세계의 가입자수에서 휴대전화의 가입자가 고정전화의 가입자를 상회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2000년 3월로 역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의 접속요금 대부분이 고정전화의 접속요금보다 높다. 일본의 경우 국제 통신회사가 외국의 통신회사로부터 받는 요금계산보다 많은 접속요금을 휴대전화 회사에 지불하는 예도 많아 휴대전화에서 착신하는 국제전화를 수신할 때마다 국제 전화회사의 적자가 증가한 예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로 착신하는 국제전화의 요금계산을 별도로 하자는 것을 포함하여 어떻게 결정할지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권고 D.93이 2000년 4월에 수정·채택되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가 많아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



3. 국제 인터넷 접속과 요금문제

미국에서 발생하여 이후 급속히 글로벌하게 확대된 인터넷은 전기통신 표준화 기관인 ITU의 기술표준 작성과는 무관하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현재 그 인터넷이 21세기의 정보통신 인프라 스트럭처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ITU는 일찍부터 21세기의 정보통신 네트워크로서 ISDN의 표준화를 진행하여 왔다. 이를 위해 세계의 전기통신 기술연구자를 동원하여 N-ISDN에서 B-ISDN으로의 발전을 전망하고 21세기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술의 개발과 표준화를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 흐름이 21세기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되리라 예측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인터넷 자체가 차세대 인터넷으로 발전하여 IPv4에서 IPv6로 진화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이 「곧, 인터넷이 기존의 모든 전기통신 서비스를 잠식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결국 ITU의 세계전기통신정책포럼이 금년 3월 IP전화 추진을 합의하여 의견서(Opinion)를 발표하게 되었다.

한편, 원래 미국에서 개발되어 그 후 국제적으로 확대된 인터넷은 국제접속에 관해서 이용하는 미국 이외의 국가가 국제전용선을 빌려 미국에 접속하는 방법을 취하여 왔다. 결국, 국제전용선 비용은 미국 이외의 인터넷 이용자가 부담을 해온 것이다. 이것은 인터넷이 학술 네트워크였던 시대에는 그저그런 문제였지만 인터넷이 상업적 이용으로 인정되어 폭발적으로 이용이 확대되면 커다란 정책과제로서 제기되게 된다.

예를 들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의 제3차 전기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1998년 6월 싱가포르)에서는 「인터넷의 traffic은 양방향이며 미국의 이용자가 미국 이외에 접속할 경우는 우리들이 지불하였던 국제회선을 사용하여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공정한 요금부담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여 미국의 반대를 누르고 『인터넷 서비스의 국제요금 결정(ICAIS)』에 관한 TaskForce 설치를 결정하였다.

APEC 전기통신 Working Group은 이 Task Force의 운영을 담당하고 협의를 거듭하였지만 미국대표는 다음과 같은 주장 「① 인터넷은 국제전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② 국제간 인터넷 트래픽은 압도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미국으로의 접속과 미국경유의 국제중계이다 ③ 국제전용선 요금은 매년 급속히 저하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을 되풀이하고 있어 대립하였다. 이 때문에 2000년 5월 제4차 APEC 전기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각국의 장관이 일제히 강하게 미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여 본 안건의 중단을 주장하는 미국을 누르고 토론의 속행을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ITU-T의 SG3는 2000년 9월 27일~10월 6일에 개최된 WTSA-2000 회의에서 국제 인터넷 접속에 관한 권고 D.50을 채택하였다(미국은 이것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후의 동향은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인터넷 접속의 비용부담 문제는 국제전화의 요금계산 문제와 이에따른 공수, 때를 맞추어 미국이 수세로 있지만 공격하는 측도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4. 결말

ASEAN은 2000년 11월 수뇌회의에서 “eASEAN Framework Agreement”라 하는 ASEAN 10개국 공동의 IT 전략에 합의하고 서명하였다. 그 가운데 ASEAN은 역내의 Internet Backbone Network와 Internet Exchange(IX)를 구축하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ASEAN내의 인터넷 트래픽은 미국 중계가 아닌 ASEAN 역내에서 소통한다고 하는 기본방침이다. 이와 같이 단지 미국 비관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입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ITU의 세계전기통신정책포럼에 의한 IP전화 추진의 제안은 21세기의 정보인프라가 IP base의 네트워크인것을 결정적있게 하였다.

이를 위해 IP전화에 관련된 국제 요금계산 문제가 새로이 과제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많은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IP전화만이 국제 요금계산의 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인터넷 전체를 보면 기묘한 사태로 보여진다. 휴대전화도 제3세대부터 제4세대에 걸쳐 IP 아키텍처로 이행하는 것이 세계전기통신정책포럼의 의견서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문제는 국제 인터넷 접속문제의 틀 가운데에서 결정되어 갈 것인가? 과연 ITU는 인터넷을 어떻게 하여 국제표준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인가? 또한 soft landing적인 rule의 뒤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ITU의 장래에 의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리라 예상된다.

